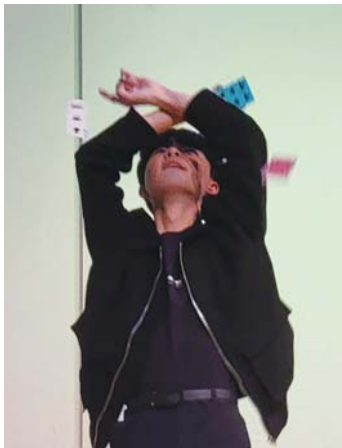


# 상상력 '한가득' 화려한 퍼포먼스



이시우군의 빛 퍼포먼스



화려한 카드모기를 선보이고 있는 김승진군.



고풍스러운 퍼포먼스를 펼치는 박현군.



프로마술사 민준서씨의 불꽃 퍼포먼스



사회를 맡은 송미령 예원예술대 교수.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 '제13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1~3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 온 12명의 어린이·청소년 마술 꿈나무들은 무대 위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스카프 마술을 선보이고 있는 박시우군.



힘있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이정원군



멋진 모기를 선보이고 있는 김기량군.



이주열군의 거대 wand 퍼포먼스



화려한 카드모기를 선보이고 있는 노유찬군.



소재민군의 불꽃 모기.



화려하게 무대를 마무리짓는 오성민군.



끈을 활용한 모기를 선보이는 김지완군.



공을 활용한 모기를 선보이는 이경근군.



최우수상을 수상받은 노유찬군.



대상을 수상받은 오성민군.